

장애인 건강실태 보여주는 통계집 발간

건강검진 수검률 낮고 진료비 비중 높아

장애인 건강검진, 질병양상, 의료이용, 사망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통계집이 발간됐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해 국내 장애인 건강실태 현황을 조망하고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번 통계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구축한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것으로,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51만574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50.1%)이 전체 인구 수검률(72.2%) 대비 22.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1급(37.2%)은 35.0%p,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39.4%)은 32.8%p 낮았다.

장애인 검진결과와 정상 판정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7.8%p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16.7%p 높아 건강상태와 건강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은 장애관련 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연평균 입원일수(18.0일)는 전체인구(2.3일) 대비 7.8배 높았다.

또한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는 5% 수준이지만 진료비는 전체의 19.7%를 차지하며,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391만원)는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의 경우 장애인(2164.8명)이 전체인구(530.8명)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미만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대비 37.9배, 10대는 16.4배, 20대는 8.0배 높았다.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고, 지적장애 50.6세, 뇌전증 53.4세, 정신장애 57.6세, 간장애 57.6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국립재활원(원장·이성재)은 장애인 건강통계 현황을 공

유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 '제1회 장애와 건강통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통계로 본 장애인 건강, 국내외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 건강통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정책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매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통계를 산출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높은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유율, 높은 진료비 비중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책연구결과 발표

간호사 등 15개 직종 ... 우수 보건의료인 양성 정책 제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김장휘)은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주제로 11월 2~3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시원이 올해 진행한 정책 위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시원에서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의료직종 중 간호사를 비롯한 15개 직종별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가 각각 실시됐다.

김장휘 국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과정에서부터 면허취득과 관리까지 유기적인 선상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15개 직종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각 직종의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발전방향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15개 직종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간호사의 경우 '우수한 간호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를 서연옥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팀에서 위탁받아 수행했다.

양 수 한국간호교육평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연옥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김남조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숙현 기자 skskim@

한국 기대수명

여성 86세(세계 4위) ... 남성 80세(세계 13위)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6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제시됐다. 보고서의 인구동향 및 국내 인구 관련 수치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인구국, 세계인구전망 등의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최근 통계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세계 총인구는 2016년 74억 3300만명으로 2015년 73억 4900만명에 비해 8400만명 증가했다. 중국이 13억 8230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인도 13억 2680만명, 미국 3억 241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5050만명으로 세계 27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2530만명으로 세계 50위를 기록했으며, 남북 인구를 합하면 7580만명으로 세계 20위였다.

출생 시 평균기대수명(2015~2020년)은 여성 74세, 남성 69

세로 2015년과 동일했다. 우리나라는 여성 86세, 남성 80세로 각각 세계 4위, 13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로 87세였다. 남성의 경우 중국,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4개국이 82세로 가장 높았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2015~2020년)은 2.5명이었다. 최고 출산율은 니제르 7.5명, 최저출산율은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로 1.2명이었다. 우리나라는 1.3명으로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몰도바에 이어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10만명당 모성 사망 수(2015년)의 세계 평균은 216명이었다. 시에라리온이 1360명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11명이다.

속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을(2006~2015년)의 세계 평균은 71%였으며, 에티오피아(16%)와 남수단(19%)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100%를 기록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홈커밍데이'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개소 1주년 기념행사로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간호현장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유휴간호사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유휴간호사들을 초대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 대 상

취업 성공 유휴간호사, 현장실무 훈련생, 취업 준비 중인 유휴간호사 등

■ 일 정

권역센터	일 시	장 소	인 원
서울·강원	2016. 11. 24. (목)	서울여성플러자	100명
부산·울산·경남	2016. 12. 05. (월)	부산시간호사회 5층 강당	50명
대구·경북	2016. 12. 01. (목)	대구시간호사회 5층 강당	50명
인천·경기	2016. 12. 06. (화)	인천시의료원	50명
광주·전북·전남·제주	2016. 12. 08. (목)	델리하우스	50명
대전·충북·충남	2016. 11. 28. (월)	유성호텔	50명

■ 프로그램

지팡스런 교육생 시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성과 발표, 유휴간호사 취업 성공사례 발표, 만찬 및 친교의 시간

■ 신청방법

권역센터 방문, 전화 및 E-mail

대표전화 : 1522-1755		
권역센터	전화번호	이 메 일
서울·강원	02-2268-2631~3	m.jobseoul@koreanurse.or.kr
부산·울산·경남	051-442-3824~5	m.jobpna@koreanurse.or.kr
대구·경북	053-756-8487	m.jobtba@koreanurse.or.kr
인천·경기	032-441-2926	m.jobica@koreanurse.or.kr
광주·전북·전남·제주	062-222-5025	m.jobkj@koreanurse.or.kr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m.jobdj@koreanurse.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역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2016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조기결혼 10대 소녀들의 건강과 인권보호 촉구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작성한 '2016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인구보건협회(회장·손숙미)에서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의 주제는 '10살 소녀들이 만드는 우리의 미래'다.

전 세계 모든 소녀들에게 건강할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표방하며 10살 소녀를 가장 뒤처지기 쉬운 취약계층으로 보고, 소녀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18세 미만의 소녀 4만 7700명이 결혼을 한다. 이른 결혼으로 인해 소녀들은 교육기회를 잃



고 가정폭력, 강제적인 성관계, 성병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보고서에서는 이른 결혼으로부터 소녀를 보호하는 일은 10세 이전, 사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주역인 10대 소녀들의 인권을 법적·사회적으로 보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성교육을 보편화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신문

취업 달기 캠페인 참여 안내



간호사신문에서 매주 게재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긍심 취업 달기 캠페인' 코너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취업을 달고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청전화 02)2260-2572

중동환자 위한 국내 병·의원 안내책자 발간

'중동환자가 많이 찾는 한국의 병·의원' 안내책자를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영찬)이 발간했다.

안내책자는 최근 3년(2013~2015년)간 중동환자 유치경험이 있는 417개 의료기관의 실적통계를 분석해 중동환자 유치실적 상위 2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작됐다.

안내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개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 13개의 대표적 진료과 및 치료질환, 주요 의료기술, 수상경력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각 병원의 장점 및 수술건수, 수술성공률, 생존률 등 지표를 유명 외국병원과 비교해 국내 의료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냈다. 의료기관별 주요 의료진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의 주

한대사관 및 중동국가의 보건부, KOTRA 해외무역관 등 관계기관에 안내책자를 배포해 한국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중동환자들의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의 대표 진료과, 의료기술 및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전달함으로써 중동국가들의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동국가들과 환자들은 한국의 의료기관 및 의료진 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중동환자들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이외에도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많이 찾았다. 건강검진, 성형, 치과, 척추관절, 한방치료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혜진 기자 hijoo@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증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유휴간호사 채용

현장실무훈련 참가

훈련비 지급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요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 서울·강원 ☎ 02)2268-2631~3
- 인천·경기 ☎ 032)441-2926
-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 대구·경북 ☎ 053)756-8487
-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